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내에

1,200억 규모 '청소년 수련관' 추진

市 "타당성 검토중"…사업비 확보가 관건

광주시가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내에 민간자본 등 모두 1천200억원을 들여 10만㎡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부대편익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다.

그 동안 호텔이나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등 각종 개발이 검토된 중앙공원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련시설의 사업비 90% 이상을 국비나 시비가 아닌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민간자본 1천86억원, 체육기금 114억원을 들여 오는 2011년 말까지 중앙공원 내에 10만㎡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부대편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을 수립중이며, 이달 안에 용역 중간보고를 열 예정이다.

시는 당초 소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검토해 용역을 발주했으나, 지난달 초 용역변경을 결정해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현재 중앙공원 내 기존 시설현황 조사 및 사업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이 지역 내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물론 사실상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주경기장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선수촌을 확보하는 두 가지 포석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당초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아파트 재개발 등을 통해 선수촌을 조성하려 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2015년 이내에 선수촌 완공이 사실상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2009 광주광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 이미 노후한 광산구 유스호스텔 등 주요 고객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입지 여건이 뛰어난 중앙공원이 선택됐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중앙공원 내 상당부분이 묘지나 경작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뛰어난 자연환경과 입지여건에도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정홍보단 이례적 구성 관심

광주시가 시정홍보 전담반 등 홍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부시장은 물론 각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시정홍보 통합 조정기구인 전담반과 시정홍보 기획단을 구성해 매달 한차례 정례회의 외에 사안이 발생할 때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담반은 홍보전략 사전기획 등 홍보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시정홍보 기획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실·국 홍보관계자가 참여한다.

특히 시정홍보 기획단은 특히 ▲총괄조정 ▲경제산업 ▲문화관광 ▲환경녹지 ▲복지·여성 ▲건설교통 등으로 세분화해 민선 4기 성과와 홍보 아이템을 발굴하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홍보단 구성은 시정홍보를 전담하는 공보관실이 있는 실정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현정은 회장 방북…김정일 위원장 면담 주목

억류 유씨와 함께 귀환 땐 남북관계 개선 급물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방북 길에 올라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현 회장은 북한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 당국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인 유모씨의 석방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사망 사건으로 작년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현 회장의 이번 방북에는 맏딸인 정지이 현대U&I 전무와 현대아산의 계약지원 담당 실무급 부장 1명이 대동했고, 이들은 2박3일간 평양에 체류하며 북측 인사들과 유씨의 석방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현 회장의 이번 방북 기간에 유씨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8·15 광복절 이전에 유씨의 귀환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유씨는 지난 3월30일 체제 비난과 여종업원에 대한 탈북 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 134일째 외부인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억류돼 있다.

특히 현 회장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 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 유씨 억류 사태에 대한 해법과 함께 남북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를 받아오면 경색된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이 되살아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현 회장은 정지이 전무와 2005년 7월16일 원산에서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나 대북 사업을 논의했고,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을 때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을 만났다. /연합뉴스

제8호 태풍 '모라꼿'이 중국 동남부해안을 휩쓴 가운데 10일 저장성 원저우시내에서 일가족이 범람한 거리를 뗏목을 타고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 8·9호 동아시아 강타 '최악 물난리'

〈모라꼿·아타우〉

대만, 52명 사망·1만명 고립·호텔 붕괴

中·日·필리핀 등도 폭우로 사망자 속출

강한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잇따라 동아시아 일대를 강타하면서 이 지역이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고, 대만에서는 호텔이 붕괴됐다. 중국에서는 수백만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10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한 바람과 호우를 동반한 9호 태풍 '아타우'의 영향으로 일본 중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효고현과 오카야마현 등에서 모두 1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 또 가옥 600채가 침수됐고, 이 지역 2만5천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제8호 태풍 '모라꼿'이 휩쓸고 지나간 대만에서는 10일 현재 12명이 사망하고 5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1만여명이 고립되고 100만가구가 정전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강변에 위치한 6층짜리 진솨이 호텔이 붕괴되기도 했다.

대만을 강타한 모라꼿이 중국 푸젠성과 저장성 등 동남부 연안에 상륙하면서 대륙에서도 폭우와 홍수 피해가 속출했다. 저장성에서는 주민 340만명이 홍수 피해를 보았으며 20만명이 대피했다. 저장성의 원저우시에서는 도심이 최고 1m 이상 잠기면서 어린이 1명이 숨졌다. 푸젠성에서는 주민 50만명이 대피했으며 선박 4만8천척이 항구에 발이 묶였다.

필리핀에서는 키아스, 투바, 벤구에트 등 북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광부 12명이 매몰돼 숨지는 등 모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17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 긴급 대피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법정 공방' 광주시의원-여성단체 화해 무산

○…성폭력 의혹 제기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원과 여성단체가 법원의 화해 중재를 거부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광주시의회 A의원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간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성단체의 유감 표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권고했지만 양측 모두 이의신청으로 화해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최근 결정조서에서 "피고(여성단체 회원)들은 A의원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A의원을 무고한 점 등을 인정하고, A의원이 인격적·사회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조정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A의원은 "피고들에게 엄한 벌을 줘야 한다"며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단체 회원들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나주도축장 내년 중 현대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 사진)은 10일 "나주도축장을 내년 중 확장하고 현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에게 나주도축장의 현대화 및 확장을 요청, "내년에 나주도축장에 대한 보강투자를 통해 더 깨끗하고 넓게 만들고 내년 안에 끝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서 다리 크게 다쳐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의 보좌관 김정곤(45)씨가 지난달 22일 국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쳐 영구장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보좌진, 국회 경위 등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위들에 밀려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김 보좌관은 무릎뼈가 잘게 부숴져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무릎뼈가 붙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물리치료를 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악의 경우 장애가 우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재균 의원은 "이번 사태 가해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하고 당시 상황을 채증하고 있지만 국회 사무처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CCTV 화면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며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가 가져온 또 하나의 불행한 사태로 한나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상해박람회 마스코트 서울역에 설치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여니(Yeony)·수니(Suny)' 대형 모형이 2010상하이세계박람회 마스코트 '하이바오(海寶)' 모형과 함께 서울역에 설치된다.

10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여수·상해 세계박람회 마스코트 설치 제막식이 열린다.

양 엑스포 마스코트 제막행사는 한·중 양국이 2012년 여수, 2010년 상해 등 아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중 양국이 엑스포의 준비와 운영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역 2층 맞이방에 설치된 여수엑스포 마스코트 '여니(Yeony)·수니(Suny)' 및 상하이엑스포 마스코트 '하이바오'는 가로 4.5m, 폭 1.5m, 높이 2.9m로 제작됐으며 양쪽에 양국 엑스포 개최시기를 알리는 전광판과 로고가 새겨져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